

# 국어 시간에 부는 평화통일바람

( ‘돌아오지 않는 대구상고 야구 선수들’ 영상 활용)

학교명	○○○○고등학교	수업학년	1학년
수업인원	학급 평균 20명(남고)	관련교과	국어

## 1. 수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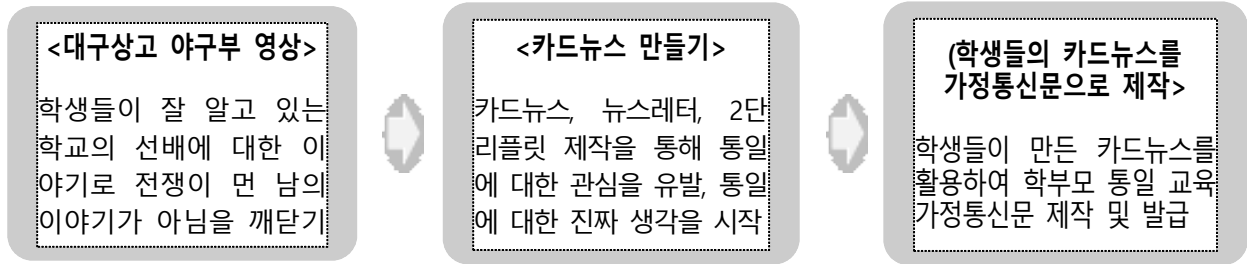
- 가. 통일 수업이 특정 교과에만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통일 수업이 교육 현장에서 모든 과목의 수업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는 것을 제약함.
- 나. 국어과의 읽기, 쓰기, 문학 영역의 수업에서 통일 주제가 자연스럽게 서로 통합 가능함.
- 다. 통일 교육의 대상에서 공고생들은 섬처럼 소외되어 있었던 면도 없지 않음.

### 평화통일 바람(지속적 통일 교육)

평화통일바람은 통일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수업 중 관련 성취기준이 나올 때 마다 지속적으로 통일 수업을 곁들이는 프로젝트이다. 잊을 만하면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계속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국어교과의 한계로 통일교육이 주가 될 수는 없겠지만 잔잔하면서도 계속되는 통일 바람에 학생들은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통일에 대한 가치관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



### 수업의 절차



**성취기준**  
매체 자료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과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을 수 있다.

국어과에서 통일 수업이 이루어질 때는, 다른 교과에서처럼 통일 수업이 하나의 이벤트성이 아니라 국어과 수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점을 갖는다. 국어과의 읽기, 쓰기, 문학 영역의 수업에서 통일 주제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서로 통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어과에서의 통일 수업



통일 수업이 특정 교과에만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통일수업이 교육 현장에서 모든 과목의 수업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는 것을 제약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대구상고 야구부 선배들의 6.25참전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학생들이 전쟁과 분단, 그리고 그 아픔을 이해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최근 에듀테크의 발달과 온라인 Tool 활용의 증가로 교실 환경에서 이들을 활용한 수업이 강조되고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게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공동체를 형성하여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Tool을 활용하여 국어 수업의 특징을 잘 활용한 통일 수업을 한다면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 1 - 1 6.25전쟁과 대구상고 야구부 영상을 통한 카드뉴스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문  
활용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대구지방 보훈청의 유튜브 '돌아오지 않는 야구 소년들'을 공문으로 안내해 주었다. 이런 자료들은 놓치지 않고 수업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학교의 선배에 대한 이야기라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대구보훈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  
보훈청

교육자료  
(유튜브)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청소년의 애국심 함양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제작한 우리지역의 6.26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본교에 바로 인접한 곳에 위치한 대구상고(현 상원고) 야구부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국전쟁 당시 대구지역 19개 학교에서 2천여 명의 학도병이 징집되었으며, 이 중 148명이 전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신의 청춘을 내놓으면서, 낙동강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 편히 야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다.



With 최태성샘

6.25전쟁과 대구상고

온라인 Tool

카드뉴스  
뉴스레터  
2단리플릿

카드뉴스, 2단 리플릿, 뉴스레터 만들기를 통해 한국 전쟁이 우리와 상관없는 먼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대구상고 야구부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온라인 Tool을 활용하여 영상에 대한 내용을 복기하고 자신의 소감을 기록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부모님 인터뷰는 통일과 전쟁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 - 2 부모님 인터뷰하기

부모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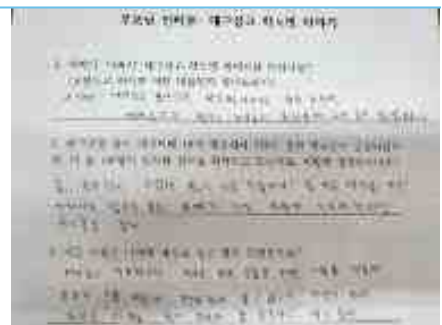
'전쟁'을  
매개로 소통

전쟁이 한 개인의 일이 아닌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이므로 학생들이 부모님의 생각을 인터뷰해봄으로써, 통일과 전쟁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이다. 부모님과 대화가 없는 현실에서 전쟁이나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전무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 부모와 자식 세대 간 '전쟁과 통일'을 매개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주제가 1회성, 단편적, 개인적인 주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이자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할 문제임을 깨닫기를 기대한다.

부모님 인터뷰 활동 사진



부모님과 '통일과 전쟁'이라는 주제를 매개로 서로 소통하는 것은 이 주제가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 대구상고 학도병 이야기를 아시나요?

내 친구가 대구상고 출신인데 학도병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대구상고가 원래 야구부가 유명한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

2. 한국전쟁 당시 대구지역 19개 학교에서 2천여 명의 학도병이 징집되었으며, 이 중 148명이 전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학도병이 그렇게 많이 징집되었다니! 참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고, 아빠가 만약 전쟁에 나가야 한다면 무서울 것 같아.

3. 지금 아들인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대구상고 학도병이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1 - 3 카드뉴스, 뉴스레터, 2단 리플릿 만들기

부모님과 대구상고 학도병 인터뷰를 한 후, 관련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인터넷 툴을 활용하여 카드 뉴스, 뉴스레터, 2단 리플릿을 만들어 보게 하였다. 학생들은 카드뉴스를 만들면서 관련 내용을 다시 상기하고 자신의 느낌을 조용히 정리할 수 있었다.

#### 1. 카드뉴스로 살펴보다



#### 2. 뉴스레터로 살펴보다



#### 대구 상고의 학도병들

##### 남훈 제공

1928년 창단한 대구상고(현 상원고, 교장 비무재) 야구부는 1950년 3월 한국 전쟁 때인, 6월 월남기 때까지 억척하게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고, 야구부 선수들은 체포 대신 총, 야구공 대신 수류탄을 들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끝없는 나이에 복수를 얻은 그 선배들이 끼 사자를 지었고, 모교 야구부 후배들에게는 '기회를 야구'라 칭칭지 해! 산 배를 못꺼치'라는 찬탄 문장을 전합니다.

#### 두려움을 이겨낸 학생들

##### 국,남훈

5년 전 대구 상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6.25전쟁에 참여하였다. 6.25전쟁에서 학생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희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전쟁을 멈출 수 있었고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3. 2단리플릿으로 살펴보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앞두고 있던 상원과 학생들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서울에서 대구로 다시 내내오게 되고 그들은 베트남 대신 종대를 겪어왔다 그들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학도병으로 가게 되었고 그들이 버티는 덕분에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느낀점**  
우리 나라 프래와 비운친선동학살 친구들이 1950년도에 6.25전쟁이 발발했을때 자기가 하고 있던 야구도 하지 못하게 전쟁에 참여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것을 보프 많이 안타까웠다 만약 그때 나라면 전쟁을 견뎌서 참여 하는게 더 할말없을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용**  
1950년도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55일간 일어난 전투 대구 상고 야구부 학생들이 종결 승전을 앞두고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공이나 배트 대신엔 수류탄과 총을 들고 전쟁에 참가 하였다.

#### 카드뉴스 제작 안내 (패들렛으로 안내)



학생들에게 카드뉴스 제작에 대한 안내를 패들렛으로 한다. 제목, 내용, 사진, 느낀점의 4단 구성과 저장 방법, 그리고 완성작을 패들렛에 올려 공유한다.

#### 옆 학교 대구상고라고?

#### 학생들의 결과물을 패들렛에 올려 공유



학생들이 인근 학교의 이야기라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 시사점

1. 학생들은 자신과 같은 나이이거나 한 살 더 많은 선배의 이야기에 놀라워했다. 더군다나 그 학도병이 3분 거리에 있는 학교의 학생이었고, 더더군다나 참전한 야구부 선배들이 전원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놀라고 안타까워했다. 확실히 우리 주변의 이야기는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전쟁에 대해 아주 가깝게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감정이입하게 해 주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전쟁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



## 시사점

2. 학생들에게 카드뉴스, 뉴스레터, 2단 리플릿의 3가지 온라인 Tool을 안내한 이유는 학생들이 원하는 Tool을 사용할 때 더 많이 집중하고 몰입하기 때문이다. 시각적 자료에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다소 학생들이 등안시하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온라인 Tool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소감들

•대구상고 야구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전쟁에 많은 학생들이 참전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대구 상원고 야구부에서도 참전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분들은 나이도 어려서 하지 못하신 것도 많고 또 야구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시기였지만 전쟁 때문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깝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이러한 일을 몰랐던 내가 부끄럽다.** 앞으로 나를 있게 해주신 분들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이 전쟁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어찌면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학교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과연 상고 야구부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며 **그 심정을 공감할 수 있었다.** 상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매우 슬픈 것 같다.

•**바로 주위에 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때의 선배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했다. 내가 저때의 학생이었다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선배님들이 존경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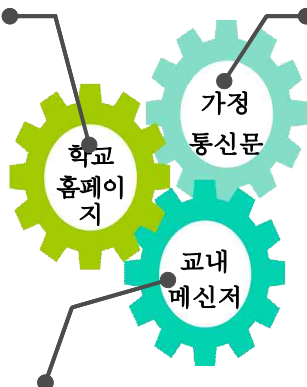
•**나도 같은 상황에서 망설임도 없이 청춘을 버리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청춘을 버리면서까지 나라를 지켜낸 학생들이 참 존경스럽다.

•이 영상을 보고 저는 저희랑 같은 나이 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 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활동에서 학생들의 소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소감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삶과 연계되고 내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 4 학생들의 카드뉴스를 지역사회와 공유

▶ 학생들의 작품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지역주민과 공유**



▶ **학부모 통일교육을 위한 가정통신문**  
(학생들이 만든 카드뉴스 활용)



▶ 교내 교사 메신저를 이용한  
**교사 통일교육**  
(학생들이 만든  
카드뉴스 활용)



학부모 통일교육 가정통신문



**통일부의 카드 뉴스 (1쪽)**

**가정통신문**    2021 - 1월 4주  
2021. 1월 14일

\* 2021-0104 \*    1401-0104

---

**주제 : 통일통일바람 카드뉴스**

남북가정통일교육자료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무뎠던 마음을 열고 안전한 차림이 무슨 거울이, 온통 다져놓았습니다. 이제 차라리 평화통일위원회 함께 무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카드뉴스를 학부모님, 아들, 보내드립니다. 2021년 평화, 소소한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만든 카드 뉴스 (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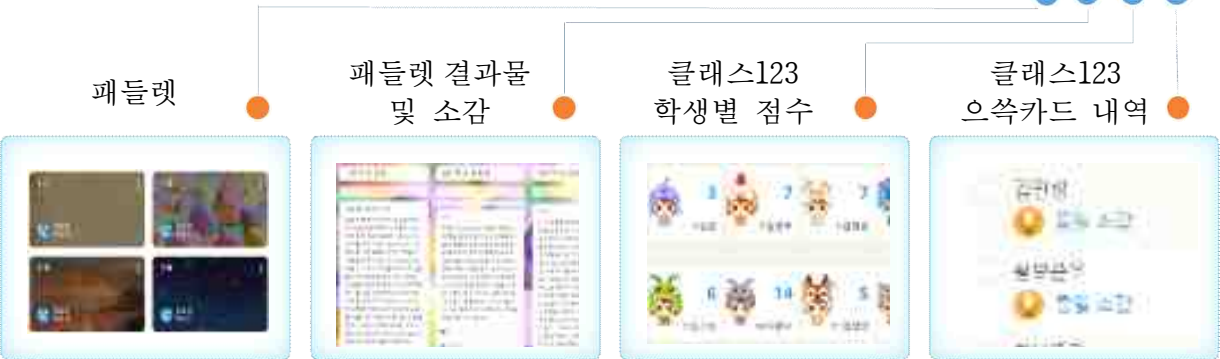
<북극기재국민고등학교 학생 작품 카드뉴스>

패들렛과 클래스123으로 블렌디드 포트폴리오 평가

**블렌디드 포트폴리오**

패들렛, 클래스123

패들렛에 올리는 통일수업 과정은 블렌디드 포트폴리오로 평가된다. 매 활동마다 학생들은 결과물을 사진 찍어 올리고, 배운점, 새롭게 알게 된 점 등 소감을 적으면서 그날 수업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는 클래스123과 연계되어 모든 과정이 평가된다.



## ‘평화통일바람’ 수업의 성과

- 대구상고 야구부 이야기’ 영상을 통해 학생들은 전쟁과 분단 그리고 그 아픔을 이해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 부모님과 ‘대구상고 야구부’ 인터뷰를 진행하고 카드뉴스, 뉴스레터, 2단 리플릿을 만들어봄으로써 관련 내용을 상기할 뿐만 아니라 정보활용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